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EASY 세계사 모의고사 3회 정답과 해설

빠른 정답

1	②	2	①	3	③	4	④	5	⑤
6	③	7	②	8	①	9	⑤	10	④
11	⑤	12	①	13	④	14	②	15	③
16	④	17	②	18	①	19	⑤	20	③

※ 정답과 해설 참고사항

1. 난이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쉬운 자료 & 쉬운 선지

★★☆ : 어려운 자료 & 쉬운 선지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쉬운 연표

★★★ : 어려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어려운 연표

2. 자료 분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빨간색 : 핵심 KEYWORD! 반드시 알아야 함!

⇒ 모르는/헛갈리는 정보라면 반드시 복습할 것!

파란색 : 자료 분석에 도움을 주는 세부 정보

⇒ 가볍게 복습할 것!(꼭 암기할 필요는 X)

노란색 배경 : 자료 분석에서의 결정적 단서

3. EBS 연계교재 또는 2015학년도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문제 풀이에 동원되는 내용은 회색&기울임체로 표시했습니다. 암기 대상이 아니므로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4. 일부 문제는 하단에 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학습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5. 용어의 표기는 EBS 연계교재(수능특강, 수능완성)의 표기를 따랐습니다.

★ 예상 등급컷 ★

1등급 : 38점 / 2등급 : 34점 / 3등급 : 30점

★ 예상 오답률 TOP5 ★

1등 : 5번 -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간 관계 문제

2등 : 12번 - 제국주의 국가 간 관계 문제

3등 : 18번 - 마셜 플랜~평화 10원칙 연표 문제

4등 : 7번 - 캅카스 지역 관련 복합 문제

5등 : 14번 - 4월 테제 연표 문제

1. ②

난이도 |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그들의 인신 공양에 시달리던 틀락스칼텍은 **콩키스타도르**들과 손을 잡았다. 틀락스칼텍의 인도를 받은 콩키스타도르들은 마침내 **수도 테노치티틀란**에 발을 들였다. 그들의 창검은 콩키스타도르들의 총 앞에 맥없이 꺾였다. 그들의 황제 과우테목은 콩키스타도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콩키스타도르**’, ‘**테노치티틀란**’ 등을 통해 밀줄 친 ‘그들’은 **아스테카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콩키스타도르**

: 콩키스타도르는 신항로 개척 시기 아메리카로 진출한 에스파냐 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밀줄 친 ‘그들’은 에스파냐의 침략을 받았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수도 테노치티틀란**

: 밀줄 친 ‘그들’의 수도가 테노치티틀란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밀줄 친 ‘그들’은 테노치티틀란을 수도로 한 아스테카인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② 아스테카인은 멕시코 고원에 자리잡아 아스테카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오답인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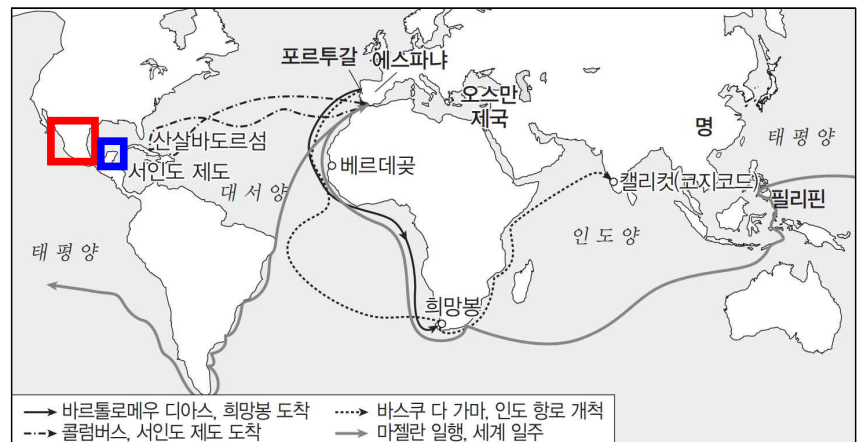
① 유카탄 반도에 자리잡은 것은 **마야인의 마야 문명**입니다.

③ 아나톨리아 반도는 서아시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현재의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로 진출한 것으로는 **히타이트** 등이 있습니다.

④ 매듭 문자로 소통한 것은 **잉카인의 잉카 문명**입니다.

⑤ 콜럼버스가 발견한 것은 **서인도 제도(산살바도르섬)**입니다.

※ 빨간 네모 안은 멕시코 고원, 파란 네모 안은 유카탄 반도입니다. 콜럼버스는 서인도 제도(산살바도르 섬)에 도착한 후 에스파냐로 귀환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특강 92p 신항로 개척 관련 이미지

정답과 해설

2. ①

난이도 |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황제께서 즉위하시어 제도를 만들고 법을 밝히시니 모든 신하들이 그것을 엄격히 지켰으며,
 즉위하신 지 26년,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하시니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게 되었다.
 ... (중략) ...
 온 천하가 한 마음 한 뜻,
 기기의 규격이 통일되고 문자도 통일되었다.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하시니, 기기의 규격이 통일되고 문자도 통일되었다.' 등을 통해 자료와 관련된 왕조는 **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하시니, 기기의 규격이 통일되고 문자도 통일되었다.**

: 자료의 황제가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하고, 기기의 규격(도량형)과 문자도 통일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료의 황제가 진 시황제이며, 자료와 관련된 왕조가 진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① 진의 시황제는 광둥 지역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때 진의 광둥 지역 관리로 파견된 썬에우다(조타)는 진 멸망 후 남비엣(남월)을 건국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② 향거리선제를 실시한 것은 한입니다.
- ③ 구마라습(쿠마라지바)은 위진남북조 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 ④ 진은 함양을 수도로 하였습니다. 뤼양(낙양)을 수도로 한 것은 주, 후한, 북위 등이 있습니다.
- ⑤ 균수법을 시행한 것은 한 무제입니다.

3. ③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출가로 왕위에 오른 빈두사라는 아버지 대에 활약한 재상 차나키야의 보조를 받으며 왕조를 경영하였다. 그는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데칸 고원 근방에 위치한 16개의 왕국을 정복하여 칼링가와 타밀을 제외한 인도 대륙 대부분을 거느리는 **인도 지역의 패권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이러한 빈두사라 왕의 업적은 그의 아들이 **칼링가를 정복하고 왕조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 '인도 지역의 패권국', '칼링가를 정복하고 왕조의 전성기를 구가' 등을 통해 자료와 관련된 왕조는 **마우리아 왕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

: 자료와 관련된 왕조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는 분열된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일부로, 기원전 1세기경 로마 공화정의 공격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즉,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는 기원전 4세기경부터 기원전 1세기경까지 존속한 국가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료와 관련된 왕조는 동시기에 존재한 왕조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거 2 | **인도 지역의 패권국, 칼링가를 정복하고 왕조의 전성기를 구가**

: 자료와 관련된 왕조가 인도 지역의 패권국이며, 칼링가를 정복함으로써 전성기를 누렸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료와 관련된 왕조는 기원전 4세기경에 건국되었고 아소카왕 대에 칼링가를 정복하며 전성기를 누린 **마우리아 왕조**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③ **마우리아 왕조는 파탈리푸트라를 수도로 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마우리아 왕조는 **상좌부 불교**를 장려하였습니다. 이타행을 지향한 불교는 **대승 불교**로, **쿠산 왕조**가 장려하였습니다.
- ② 이란 계통의 민족이 건국한 것은 **쿠산 왕조**입니다.
- ④ 『마누 법전』을 편찬한 것은 **굽타 왕조**입니다.
- ⑤ 지즈야를 징수한 것은 8세기 이후 등장한 **이슬람 왕조(가즈니 왕조, 고르 왕조, 델리 술탄 왕조, 무굴 제국 등)**입니다.

4. ④

난이도 | ★★★(쉬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임보*는 황제의 측근에게 아첨하고 황제의 뜻에 영합하여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 ... (중략) ... 그는 현명하거나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질시하였고, 성품마저 음험하였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구밀복검(口蜜腹劍)'이라 일컬었다. ... (중략) ... 임보가 거둬서 옥사를 일으키니, 태자 이하의 모든 인물들이 그를 무서워하였다. 그가 재상으로 있는 19년 동안 천하가 혼란하였지만 황제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 **녹산과 사명도 임보의 권력이 두려워 그가 죽은 이후에야 황제에게 반기를 들 수 있었다.**

* 재상 이임보(李林甫)를 말함.
 - 『십팔사략』

'녹산과 사명도 임보의 권력이 두려워 그가 죽은 이후에야 황제에게 반기를 들 수 있었다.' 등을 통해 밑줄 친 '황제'는 **당 현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녹산과 사명도 임보의 권력이 두려워 그가 죽은 이후에야 황제에게 반기를 들 수 있었다.**

: 임보가 죽은 이후 **녹산(안녹산)**과 **사명(사사명)**이 밑줄 친 '황제'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황제'는 **안사의 난**을 겪은 **당 현종**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

정답인 이유 |

④ 당 현종은 개원의 치를 열어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동돌궐을 정복한 것은 당 태종입니다.
- ② 9품중정제를 실시한 것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황제들입니다. 9품중정제는 수 문제 대에 폐지되었습니다.
- ③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당 고종과 신라 문무왕입니다.
- ⑤ 북제를 공격한 것은 북주, 양(梁), 진(陳)의 황제들입니다.

5. ⑤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사후 여로보암 1세의 이스라엘 왕국과 르호보암의 유대 왕국으로 분열되었다. 분열 당시 이스라엘 왕국은 헤브라이의 12지파 중 10지파의 지지를 받았고, 통일 왕국의 비옥한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며, 유대 왕국에 우위를 점하였다. 그러나 신흥 세력으로 떠오른 (가)을/를 배척하는 정책을 펼치다 (가)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가)의 강압적인 통치로 인해 북이스라엘 왕국의 유민들은 헤브라이인의 정체성을 거의 상실하였고, 그들은 성서에서 헤브라이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게 된다. 한편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지켜본 유대 왕국은 (가) 친화 정책을 펼치는 한편,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 (가)을/를 견제하는 등의 외교전을 펼쳤으나, (가) 멸망을 전후한 혼란 속에서 멸망하였다. 그러나 서아시아 지역을 재통일하며 구 유대 왕국 지역을 장악한 (나)의 키루스 2세가 관용 정책을 바탕으로 한 헤브라이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유대 왕국의 유민들은 헤브라이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가)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등을 통해 (가) 국가는 아시리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가)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 이스라엘 왕국이 (가) 국가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국가는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서아시아 지역을 재통일하며 구 유대 왕국 지역을 장악한 (나)의 키루스 2세 등을 통해 (나) 국가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서아시아 지역을 재통일하며 구 유대 왕국 지역을 장악한 (나)의 키루스 2세

: (나)의 키루스 2세가 서아시아 지역을 재통일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국가는 키루스 2세 대에 서아시아를 통일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⑤ 아시리아 내부의 반란으로 성립된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는 아시리아를 멸망시켰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왕의 길'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대에 조성되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시리아는 '왕의 길'을 이용할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② 아시리아는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 등의 공격으로 멸망하였습니다.
- ③ 페르세폴리스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 대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페르세폴리스에서 교전할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아시리아가 멸망한 이후 메디아의 속국의 하나로 건국되었습니다.
- ④ 아시리아는 기원전 7세기경 멸망하였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기원전 4세기경 성립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시리아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항할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아시리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건국되기 이전에 멸망하였으므로, 둘이 동맹을 맺을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6. ③

난이도 |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동서 교회 분열로의 역사에는 두 명의 레오 3세가 등장한다. (가)의 레오 3세는 성상 파괴령을 선포하여 동서 교회 사이의 갈등의 불씨를 일으켰다. 이는 서방 교회의 큰 반발을 일으켜 서방 교회가 (나)와/과 결탁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것이 정점에 이른 것이 교황 레오 3세 때로, 교황 레오 3세는 (나)의 군주를 서로마 황제로 대관하며 서방 교회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이처럼 서방 교회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데에 (가)이/가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가)와/과 (나)이/가 아드리아 해와 발칸 반도에서 수 차례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성상 파괴령으로 인한 동서 갈등은 9세기 초 (가)의 테오필로스 황제의 아내인 테오도라가 공의회를 소집하고 성상 파괴론자를 파문하면서 일단락되었고, (가)와/과 (나) 사이의 전쟁도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무승부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두 레오 3세로 인해 동서 교회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결국 (가)의 황제와 서방 교회의 교황이 상호 파문하는 동서 교회 분열로 이어졌다.

(가)의 레오 3세는 성상 파괴령을 선포 등을 통해 (가) 국가는 비잔티움 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가)의 레오 3세는 성상 파괴령을 선포

: (가)의 황제인 레오 3세가 성상 파괴령을 선포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국가는 비잔티움 제국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교황 레오 3세는 (나)의 군주를 서로마 황제로 대관 등을 통해 (나) 국가는 프랑크 왕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

근거 | **교황 레오 3세는 (나)의 군주를 서로마 황제로 대관**
 : (나)의 군주가 교황 레오 3세에 의해 서로마의 황제로 대관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교황 레오 3세에게 서로마의 황제로 대관된 것은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국가는 프랑크 왕국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③ 비잔티움 제국은 아나톨리아 반도와 서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방면에서, 프랑크 왕국은 이베리아 반도 방면에서 우마이야 왕조와 대립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보름스 협약을 체결한 것은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히 5세와 교황 칼릭스투스 2세입니다.
- ② 셀주크 튀르크는 11세기경에 등장하였고, 프랑크 왕국은 843년의 베르딩 조약으로 분할되며 멸망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프랑크 왕국은 셀주크 튀르크를 협공할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④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충돌한 것은 비잔티움 제국과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 ⑤ 아나톨리아 반도의 패권을 두고 경쟁한 것은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이슬람 제국(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등)-오스만 제국 등입니다.

7. ②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왕이 미치면 캅카스에 쳐들어간다.’라는 페르시아의 속담이 있다. 이는 캅카스 산맥과 우랄 산맥 등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수성과 지역민의 호전적인 성향으로 인한 것이었다. 실제로도 이 속담처럼 수많은 제국들이 캅카스 지역에서 대패하거나, 캅카스 지역을 끝내 정복하지 못하고 회군해야 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승승장구하던 (가)은/는 캅카스 지역에 자리잡은 유목제국 하 자르에 막혀 유럽으로의 확장에 실패하였고, (나)의 천호장인 수부타이와 제베는 이 지역에 자리잡은 조지아 왕국을 공략하다가 캅카스 산맥에 포위당해 궤멸당할 뻔하기도 하였다. 또 (나)의 계승을 표방하고 오스만 제국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은 (다)은/는 캅카스 지역의 끈질긴 저항에 질려 이 지역의 공략을 중지하였다. ‘제국의 무덤’이라는 캅카스 지역의 유명세는 근현대에도 계속되었다. (라) 공략을 위해 캅카스 지역을 공격하는 ‘청색 작전’을 펼친 (마)은/는 캅카스 지역 서부의 스탈린그라드에서 (라)에게 대패하며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승승장구’ 등을 통해 (가) 국가는 **이슬람 제국(정통 칼리프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승승장구**

: (가) 국가가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승승장구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국가는 이슬람 제국(정통 칼리프 시대)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천호장’ 등을 통해 (나) 국가는 **몽골 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나)의 천호장**

: (나)의 천호장인 수부타이와 제베가 캅카스 지역 공략에 실패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국가는 천호제를 운영한 몽골 제국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계승을 표방하고 오스만 제국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은 등을 통해 (다) 국가는 **티무르 왕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나)의 계승을 표방하고 오스만 제국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은**

: (다) 국가가 (나) 국가의 계승을 표방하고 오스만 제국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을 정도로 압박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 국가는 몽골 제국의 계승을 표방하고, 앙카라 전투에서 승리하며 오스만 제국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은 티무르 제국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마)은/는 캅카스 서부인 스탈린그라드에서 (라)에게 대패 등을 통해 (라) 국가는 **소련**, (마) 국가는 **독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마)은/는 캅카스 지역 서부의 스탈린그라드에서 (라)에게 대패**

: (마) 국가가 스탈린그라드에서 (라)에게 대패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마) 국가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한 독일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라) 국가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과 교전한 소련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② 교황은 몽골 제국의 침략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친서를 카르피니 사절단을 통해 몽골 제국에 전달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투크릴 베그가 활약한 것은 셀주크 튀르크입니다.
- ③ 아프간족의 공격으로 쇠퇴·멸망한 것은 사파비 왕조입니다.
- ④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은 1918년에 체결되었고, 소련은 1922년에 성립되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소련은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한 것은 독일 제국과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입니다.
- ⑤ 독일은 국제 연맹을 탈퇴(1933년)한 후 라인란트를 점령(1936년)하였습니다.

★ 20세기 러시아 지역 국가와 지도자 ★

국가	지배자
러시아 제국	니콜라이 2세
임시정부(러시아 공화국)	알렉산드르 케렌스키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	블라디미르 레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	이오시프 스탈린
	니키타 흐루쇼프
	<small>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유리 안드로포프, 콘스탄틴 체르넨코</small>
러시아(러시아 연방)	미하일 고르바초프
	보리스 옐친

정답과 해설

8. ①

난이도 | ★☆☆(쉬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에서 지동설을 주장하며 과학혁명을 촉발하였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칸트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재발견’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세상에 나오기 무려 1700년 전, **아리스타르코스**가 이미 지동설을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코페르니쿠스가 1700년 동안 파묻혀 있던 오랜 문화의 산물을 재발견한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다.

아리스타르코스 등을 통해 밀줄 친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헬레니즘 시대**에 발전하였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기원전 4세기경부터 기원전 1세기경까지 (알렉산드로스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점령~로마 공화정의 이집트 합병)**를 의미합니다.

근거 | **아리스타르코스**

: 밀줄 친 ‘문화’와 관련된 인물로 아리스타르코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밀줄 친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① 헬레니즘 시대에는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② 콜로누스가 콜로나투스를 경작하는 콜로나투스제는 로마 제국 후기(오현제 시대 이후)에 등장한 경작 방식입니다.
- ③ 행성의 타원 운동을 증명한 과학자는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케플러는 16~17세기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 ④ 삼권 분립을 주장한 계몽사상가는 몽테스키외입니다. 몽테스키외는 18세기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 ⑤ 제국을 4분할할 것을 명한 황제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3세기경 재위한 인물입니다.

9. ⑤

난이도 | ★☆☆(쉬운 연표)

자료 분석 |

나카노오에는 삼한의 사신이 입조한 때에 이시카와마로가 표문을 읽는 틈을 타, 코마로, 아미타와 함께 소가노 이루카의 목을 베었다. 소가노 이루카의 시신은 그의 부친인 소가노 에미시에게 전해졌고 소가노 에미시는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하였다. 이로써 **소가 가문은 야마토에서 완전히 진멸**되었다.

소가 가문은 야마토에서 완전히 진멸 등을 통해 자료와 관련된 사건은 **다이카 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카 개신은 **645년**에 일어났습니다.

근거 | **소가 가문은 야마토에서 완전히 진멸**

: 자료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야마토 정권에서 소가 가문이 완전히 진멸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료와 관련된 사건은 소가 가문을 숙청하고 중앙 집권적 개혁을 단행한 다이카 개신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⑤ 구품중정제는 수 문제 대에 폐지되었고, 수는 618년에 멸망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구품중정제 폐지는 다이카 개신 이전의 일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서돌궐 정복은 당 고종 대에 있었던 일이고, 당 고종은 당 태종의 뒤를 이은 인물입니다. 또한 당 태종의 고구려 원정은 64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서돌궐 정복은 다이카 개신 이후의 일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서돌궐 정복은 65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 ② 비전은 당 대에 사용된 약속 어음의 일종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비전을 통해 거래하는 상인의 모습은 다이카 개신 이후에도 볼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③ 『고사기』는 나라 시대에 편찬된 역사서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사기』 편찬은 다이카 개신 이후의 일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고사기』는 712년에 편찬되었습니다.
- ④ 도다이사는 나라 시대에 건립된 사찰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도다이사 건립은 다이카 개신 이후의 일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도다이사는 745년에 건립되었습니다.

10. ④

난이도 |

자료 분석 |

나는 태조의 적자로서 국가의 지친(至親)이다. **나의 아버지는 남경에서 세력을 규합하여 북방의 오랑캐들을 모조리 몰아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뒤를 어린 군주가 계승하여 간사한 자를 신임하고 멋대로 큰 화를 일으켜 우리 집안을 도륙하고 있다. …(중략)… 아버지가 남긴 황명조훈(皇明祖訓)에는 ‘조정에 바른 신하 없고 안으로 간악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군사를 훈련시켜 이를 토벌하여 군주 옆의 악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의로운 자와 간사한 자는 한 하늘 아래 더불어 살 수 없으니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악인을 토벌하여 사직을 편안케 하리라!

나의 아버지는 남경에서 세력을 규합하여 북방의 오랑캐들을 모조리 몰아내었다. 등을 통해 자료와 관련된 왕조는 **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나의 아버지는 남경에서 세력을 규합하여 북방의 오랑캐들을 모조리 몰아내었다.**

: 자료와 관련된 왕조의 개창자가 남경에서 세력을 규합하여 북방의 오랑캐들을 몰아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료와 관련된 왕조는 남징에서 건국되었으며, 몽골을 몰아낸 명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남징에서 건국된 왕조 중 북방 민족을 몰아낸 것은 명 뿐입니다.)

정답과 해설

정답인 이유 |

④ 명 영락제는 몽골 원정을 단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이븐 바투타가 방문한 것은 원입니다.
- ② 왕안석의 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송입니다.
- ③ 만한 병용제를 실시한 것은 청입니다.
- ⑤ 교초가 남발된 것은 원입니다.

11. ⑤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영화 '브이 포 벤데타', 해커 단체인 '어나니머스'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가이 포크스 가면'은 영국의 테러리스트인 가이 포크스(Guy Fawkes)에서 유래한 것이다. 가이 포크스는 본래 성공회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그의 어머니가 가톨릭교도와 재혼하며 가톨릭교의 열성 신자가 되었다. 그가 장성했을 무렵인 1603년, 성공회를 확립한 여왕이 죽고 스코틀랜드의 (가)이가 잉글랜드의 국왕을 겸하게 되자, (가)이가 잉글랜드를 가톨릭 국가로 되돌려 놓기를 기대하였다. 그가 바라던 대로 (가)은/는 청교도를 탄압하였지만 여전히 성공회를 우대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그는 웨스트민스터 궁전에 폭탄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암살을 모의한 동료 중 하나가 이를 밀고하여 폭탄이 사전 발각되었고, 가이 포크스는 처형되었다. 이후 가이 포크스의 얼굴을 기형적으로 변형한 상징이 테러리스트를 조롱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테러리스트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이미지만 남아, 지금과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1603년, 성공회를 확립한 여왕이 죽고 스코틀랜드의 (가)이가 잉글랜드의 국왕을 겸하게 되자, '청교도를 탄압' 등을 통해 (가) 국왕은 제임스 1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임스 1세는 1603년부터 1625년까지 재위하였습니다.

근거 1 | 1603년, 성공회를 확립한 여왕이 죽고 스코틀랜드의 (가)이가 잉글랜드의 국왕을 겸하게 되자

: (가) 국왕이 성공회를 확립한 여왕이 죽은 이후 잉글랜드의 국왕으로 즉위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국왕은 엘리자베스 1세 사후 잉글랜드의 국왕으로 즉위하여 스튜어트 왕조를 개창한 제임스 1세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거 2 | 청교도를 탄압

: (가) 국왕이 청교도를 탄압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국왕은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등 청교도를 탄압한 스튜어트 왕조의 국왕 중 한 명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⑤ 제임스 1세의 재위 시기인 1620년에 청교도 일부가 메이플라워 호에 승선하여 아메리카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명예 혁명은 제임스 2세 재위 시기인 1688년에 일어났습니다.
- ② 권리 청원은 찰스 1세 재위 시기인 1628년에 발표되었습니다.
- ③ 권리 장전은 메리 2세와 윌리엄 재위 시기인 1689년에 승인되었습니다.
- ④ 심사법과 인신 보호법은 각각 찰스 2세 재위 시기인 1673년과 167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12. ①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고종의 밀명을 받은 헤이그 특사는 만국평화회의장에 들어가는 데에는 실패하였지만, 치열한 언론전을 펼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들의 사진과 주장이 「만국평화회의보」의 1면에 실렸고, 당대 최고의 기자였던 윌리엄 스테드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그들을 지지하는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가)은/는 이미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정한 상태였고, (나)은/는 필리핀 지배를 인정받는 대가로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정하였다. 카자르 왕조의 패권을 두고 (가)와/과 대립하던 (다)은/는 일본과 동맹을 맺은 상태였다. (다)을/를 견제하기 위해 삼국 동맹을 구축한 (라)은/는 칭다오 문제에 전념하느라 일본과의 충돌을 꺼렸고, 삼국 동맹의 한 축이었던 (마)은/는 발칸반도에서 (가)와/과 경쟁하고 있었기에 일본과 척치지 않으려 하였다. 결국 헤이그 특사는 여론의 지지를 받는 데에 그쳤고, 열강의 철저한 외면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정' 등을 통해 (가) 국가는 러시아 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정

: (가) 국가가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정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국가는 러시아 제국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지배를 인정받는 대가로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정' 등을 통해 (나) 국가는 미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필리핀 지배를 인정받는 대가로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정

: (나) 국가가 필리핀 지배를 인정받는 대가로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정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국가는 에스파냐와의 전쟁을 통해 필리핀을 차지하고,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권을 인정한 미국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카자르 왕조의 패권을 두고 (가)와/과 대립' 등을 통해 (다) 국가는 영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카자르 왕조의 패권을 두고 (가)와/과 대립

: (다) 국가가 카자르 왕조의 패권을 두고 (가) 국가와 대립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 국가는 이란 지역에서 러시아 제국과 패권 경쟁을 한 영국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

『(다)을/를 견제하기 위해 삼국 동맹을 구축』, 『칭다오 문제』 등을 통해 (라) 국가는 **독일 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다)을/를 견제하기 위해 삼국 동맹을 구축』

: (라) 국가가 삼국 동맹을 구축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라) 국가는 삼국 동맹에 참여한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중 하나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칭다오 문제』

: (라) 국가가 칭다오 문제로 인해 일본과의 충돌을 꺼렸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라) 국가는 칭다오 지역의 이권을 차지한 독일 제국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삼국 동맹의 한 축』, 『발칸 반도에서 (가)와/과 경쟁』 등을 통해 (마) 국가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삼국 동맹의 한 축』

: (마) 국가가 (라) 국가와 함께 삼국 동맹의 한 축이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마) 국가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또는 이탈리아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발칸 반도에서 (가)와/과 경쟁』

: (마) 국가가 발칸 반도에서 (가)와 패권 경쟁을 벌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마) 국가는 러시아 제국의 범슬라브주의를 견제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① 러시아 제국은 크림 전쟁 중, 미국은 독립 전쟁 중 영국과 교전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②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것은 소련과 나치 독일입니다.
- ③ 냉전 시기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은 것은 서독입니다. 미국이 마셜 계획으로 오스트리아를 원조하긴 했으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해체된 이후의 일이고, 영국은 마셜 계획의 시혜 국가가 아니라 수혜 국가였습니다.
- ④ 수단 남부(파쇼다)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한 것은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 ⑤ 모로코 사건 당시 독일 제국을 옹호한 것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뿐입니다. 당시 영국은 프랑스를 옹호하였습니다.

★ 출제자의 COMMENT ★

12번 문제는 (가), (나) 국가 사이의 관계 유형을 극단적으로 변형시킨 문제입니다. 다섯 개의 국가를 추론해야 함과 동시에, 각각의 관계들까지 고려하며 풀어나가 하기에, 평가원이 낸 (가), (나) 국가 사이의 관계 유형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가 (가), (나) 국가 사이의 관계 유형을 연습하기에는 좋았을 것입니다.

(가), (나) 국가 사이의 관계 유형은 두 번 모두 근현대사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근현대사에서는 다양한 국가들이 얽히는 만큼, 국가 간 관계를 잘 파악하며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④

난이도 | ★★★ (어려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혁명으로 공화정이 수립되었고, 한때의 왕 루이는 영국으로 망명하였다』. 공화정은 『혁명에 다소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부르주아 중심의 자유주의자들과 적극적으로 봉기한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자들로』 구성되었다. 둘은 개혁안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였으나, 일단 새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보통 선거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혁명으로 공화정이 수립』, 『한때의 왕 루이는 영국으로 망명하였다』, 『혁명에 다소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부르주아 중심의 자유주의자들과 적극적으로 봉기한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자들』, 『보통 선거를 도입』 등을 통해 밑줄 친 ‘혁명’은 **프랑스 2월 혁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혁명으로 공화정이 수립』

: 밑줄 친 ‘혁명’으로 인해 공화정이 수립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혁명’은 공화정 수립으로 이어진 청교도 혁명, 프랑스 혁명, 프랑스 2월 혁명 중 하나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한때의 왕 루이는 영국으로 망명하였다』

: 밑줄 친 ‘혁명’을 통해 쫓겨난 왕의 이름이 ‘루이’이며, 그가 영국으로 망명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혁명’은 영국이 아닌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밑줄 친 ‘혁명’ 이후에도 쫓겨난 국왕이 생존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혁명’은 루이 필리프를 축출한 프랑스 2월 혁명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거 3 | 『혁명에 다소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부르주아 중심의 자유주의자들과 적극적으로 봉기한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자들』

: 밑줄 친 ‘혁명’을 부르주아 중심의 자유주의자들보다는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혁명’은 프랑스 2월 혁명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혁명은 아니지만 파리 코뮌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4 | 『보통 선거를 도입』

: 밑줄 친 ‘혁명’ 이후 보통 선거가 도입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혁명’은 프랑스 혁명 또는 프랑스 2월 혁명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프랑스 혁명 때에는 보통 선거를 규정한 1793년 헌법이 제정되었고, 프랑스 2월 혁명 이후에 보통 선거가 도입되어 루이 나폴레옹이 보통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④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은 독일 지역의 자유주의자들이 프랑크푸르트 회의를 개최하여 독일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답과 해설

오답인 이유 |

- ① 벨기에는 7월 혁명의 영향으로 1831년에 독립하였습니다.
- ② 청년 이탈리아 당은 빈 체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1831년에 결성되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년 이탈리아 당의 결성은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을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③ 영국의 제1차 선거법 개정은 183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영국의 제1차 선거법 개정은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을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⑤ 심사법 폐지는 1828년, 가톨릭교도 해방법은 182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심사법 폐지와 가톨릭교도 해방법 제정은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을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프랑스 2월 혁명은 1848년 2월에 일어났습니다.

14. ②

난이도 | ★★★(어려운 연표)

자료 분석 | ※ 2015 개정교육과정 금성교과서 자료연계 ※

1. 자본주의의 타도 없이 종전은 불가능하다.
2. 부르주아에게 권력을 넘긴 1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와 빈농이 권력을 장악하는 2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3. 임시정부를 지지하면 안 된다.
4. 소비에트의 권력을, 볼셰비키의 권력을 넓혀야 한다.
5. 의회민주주의 공화국에 반대한다.
6. 지주의 재산은 몰수하고, 토지는 국유화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타도’, ‘종전은 불가능’, ‘임시정부를 지지하면 안 된다’, ‘볼셰비키’ 등을 통해 다음 문서는 3월(러시아력 2월) 혁명과 10월(러시아력 11월) 혁명 사이(1917년)에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레닌이 발표한 4월 테제이며 1917년 4월에 발표되었습니다.

근거 1 | 자본주의의 타도

: 자료는 자본주의를 타도의 대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이 자료를 발표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종전은 불가능

: 자료는 자본주의를 타도하지 않으면 종전이 불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료가 전쟁 중에 발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역시 다른 근거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3 | 임시정부를 지지하면 안 된다, 볼셰비키

: 자료는 임시정부를 반대하고 있고 볼셰비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제1차 세계 대전 중, 케렌스키 임시정부 시기에 볼셰비키에서 자료를 발표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 ② 니콜라이 2세는 러시아 2월 혁명으로 퇴위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니콜라이 2세의 퇴위는 문서가 발표되기 이전의 일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워싱턴 회의는 1921년에 개최되었습니다.
- ③ 킬 군항에서 수병들이 봉기한 것은 1918년의 일입니다.
- ④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28년(소련), 1953년(중국), 1962년(대한민국)에 추진되었습니다.
- 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는 1922년에 소련이 성립하며 소련에 편입되었습니다.

15. ③

난이도 | ★★★(쉬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김희선 작가의 소설 「공의 기원」은 축구공을 둘러싼 여러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허구적 인물들의 일화가 뒤섞이는 이 소설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스치듯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설에서 앤더슨이라는 인물이 ‘어린 시절 옆집에 살던 수염이 텃수룩한 독일인 할아버지’의 책을 읽으며 세상을 뒤엎을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토마스 굿맨의 공장의 아동 노동 실태를 밝히는 모습이 등장한다. 어린 시절 옆집에 살던 할아버지의 외양 묘사나, 그 할아버지의 책을 계기로 앤더슨이 산업혁명의 부정적 측면을 폭로하게 되었다는 점 등은, 김희선 작가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공산당 선언」을 집필한 (가)을/를 묘사하고자 했음을 짐작케 해 준다.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공산당 선언」을 집필’ 등을 통해 (가) 인물은 카를 마르크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공산당 선언」을 집필

: (가) 인물이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공산당 선언」을 집필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인물은 카를 마르크스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 ③ 마르크스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며 생시몽과 오언 등의 초기 사회주의자(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협동촌을 건설한 것은 초기 사회주의자인 오언입니다.
- ② 『법의 정신』을 편찬한 것은 계몽주의자인 몽테스키외입니다.
- ④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불합리한 면을 비판하고 평등 사회를 주장한 사상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마르크스는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를 비판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시장 중심의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를 옹호한 것은 『국부론』을 편찬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입니다.
- ⑤ 매뉴팩처 체제로의 전환에 영향을 준 것은 신항로 개척 이후 나타난 상업 혁명입니다.

정답과 해설

16. ④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바라티에리 총독이 이끄는 **이탈리아의 군대**는 본격적으로 (가)을/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바라티에리는 (가)의 지형에 익숙하지 않았고, **메넬리크 2세**는 병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이탈리아군을 포위 공격하였다. 궁지에 몰린 바라티에리는 왕실 근위대까지 투입하였으나 궤멸당한 채 퇴각해야 했다.

등을 통해 (가) 국가는 **에티오피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이탈리아의 군대**

: (가) 국가가 이탈리아 군대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국가는 이탈리아 군대와 교전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메넬리크 2세**

: (가)의 군대를 지휘하는 인물이 메넬리크 2세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국가는 메넬리크 2세가 재위한 에티오피아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④ **이탈리아는 무솔리니가 집권한 이후 에티오피아를 침공(1935)하여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헤레로족은 남서아프리카 지역에 자리잡은 민족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헤레로족과 관련이 없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헤레로족은 독일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하여 **나미비아**의 주요 구성 민족이 되었습니다.
- ② 이산들과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줄루 왕국**입니다.
- ③ 마지막 봉기를 주도한 것은 **독일령 동아프리카 식민지(현재의 탄자니아)의 킨 제케틸레**입니다.
- ⑤ 아라비 파샤는 **이집트**에서 활동한 반영 운동가입니다.

17. ②

난이도 |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링컨 대통령의 북부군 총사령관 제안은 의외의 인물인 (가)에게도 다다랐다. **공화주의자임에도 대업을 위해 영토를 카보우르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에게 헌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가)이가 세계인들에게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아이콘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물론 (가)은/는 링컨 대통령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였지만, 이 일화를 통해 민족주의자로서의 그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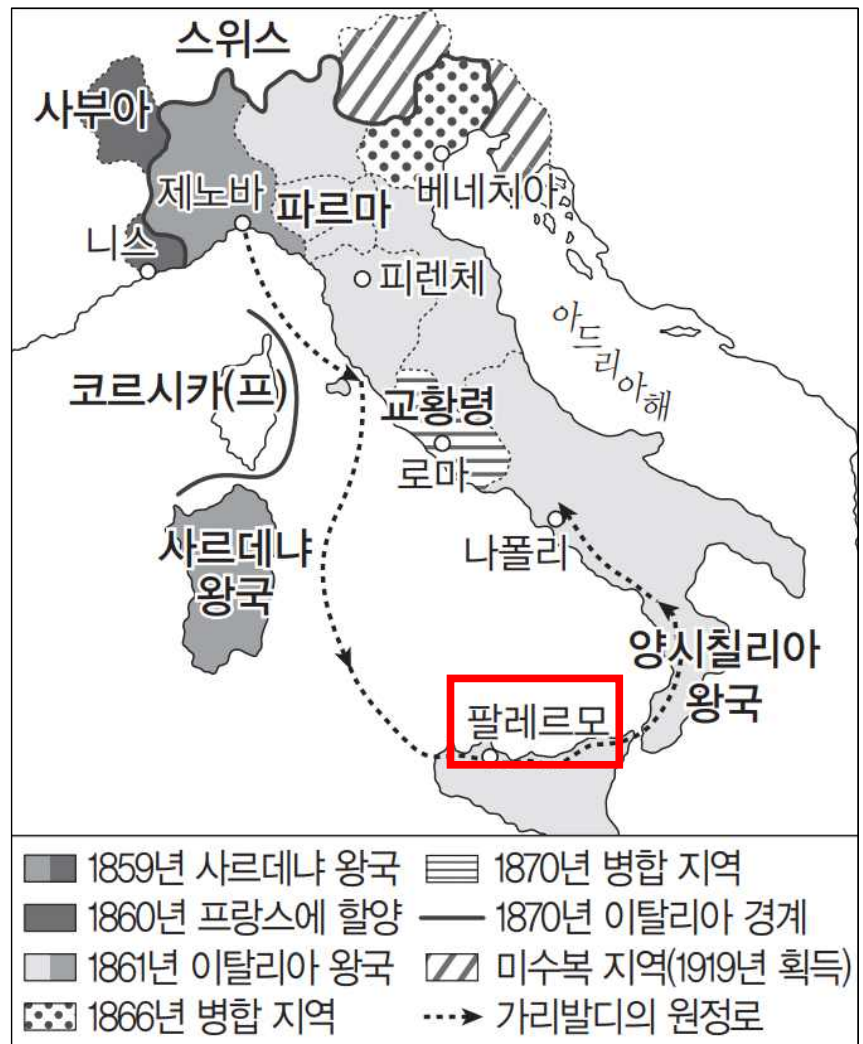
'공화주의자임에도 대업을 위해 영토를 카보우르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에게 헌납' 등을 통해 (가) 인물은 **주세페 가리발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공화주의자임에도 대업을 위해 영토를 카보우르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에게 헌납**

: (가) 인물이 자신이 차지한 영토를 카보우르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에게 헌납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인물은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한 후 이를 사르데냐 왕국에 헌납한 주세페 가리발디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② **팔레르모는 가리발디가 점령한 시칠리아 왕국의 도시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리발디는 팔레르모를 점령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카르보나리당을 결성한 것은 **마치니**입니다. 가리발디가 마치니와 함께 활동하긴 했으나, 이는 카르보나리당이 해산된 이후, 청년 이탈리아 당에서였습니다.
- ③ 프롱비에르 협정 체결을 주도한 것은 **카보우르**입니다.
- ④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제로 즉위한 것은 **빌헬름 1세**입니다.
- ⑤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비스마르크**입니다.

정답과 해설

18. ①

난이도 | ★★★(어려운 연표)

자료 분석 | ※ 2022학년도 수능특강 자료연계 ※

- (가) 우리는 **유럽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형편에 놓여 있는지는 새삼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계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 (나) 1. 기본적 인권과 국제 연합 헌장 존중
3. 인종과 국가 간의 평등 인정
4. **타국의 내정 불간섭**
6. **강대국에 유리한 집단 안보 체제 배제**
8.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유럽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등을 통해 (가) 자료는 **마셜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셜 계획은 **1947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근거 | **유럽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 유럽이 전쟁의 폐허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자료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유럽의 경제를 재건하려는 마셜 계획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등을 통해 (나) 자료는 **평화 10원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평화 10원칙은 **1955년**에 **반동 회의(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근거 | **타국의 내정 불간섭, 강대국에 유리한 집단 안보 체제 배제**

: 타국의 간섭을 반대하고, 특정 국가에게 유리한 국제 체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자료는 중립주의 노선과 비동맹주의 노선을 표방한 평화 10원칙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① 콜롬보 회의는 1954년에 개최되었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② 코민테른은 **1919년**에 레닌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③ 문화 대혁명은 **1966년**에 일어났습니다.
④ 닉슨 독트린은 **1969년**에 발표되었습니다.
⑤ 제1차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은 **1972년**에 체결되었습니다.

19. ⑤

난이도 |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터키의 국부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국제 정세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총선을 통해 총리, 나아가 총통 자리에 올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전권을 장악한 [가]**을/를 “제정신이 아닌 인물”이라, **로마로 진군하여 이탈리아 왕국의 총리가 된 [나]**을/를 “자기 국민의 손에 목 매달릴 인물”이라 혹평하며 절대 추축국의 편에 서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고, **[가]**은/는 전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나]**은/는 이탈리아 국민들에 의해 총살당한 후 시신이 효수되었다.

- [A] : 부르주아지들이 혁명 앞에서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에서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요, 얻을 것은 전세계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B] : **모든 것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국가에 반항하는 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총선을 통해 총리, 나아가 총통 자리에 올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전권을 장악, '전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만행' 등을 통해 (가) 인물은 **아돌프 히틀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총선을 통해 총리, 나아가 총통 자리에 올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전권을 장악**

: (가) 인물이 총선에서 승리하며 바이마르 공화국의 총리가 된 후 총통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인물은 1932년 바이마르 공화국 총선에서 승리하며 총리가 되고, 1933년에 총통 자리에 오른 아돌프 히틀러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로마로 진군하여 이탈리아 왕국의 총리가 된' 등을 통해 (나) 인물은 **베니토 무솔리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로마로 진군하여 이탈리아 왕국의 총리가 된**

: (나) 인물이 로마로 진군하여 이탈리아 왕국의 총리가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인물은 로마 진군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이탈리아 왕국의 총리에 오른 베니토 무솔리니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 ⑤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등을 통해 주장 [A]는 공산주의와 관련된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모두 파시즘을 주장한 인물이므로, 주장 [A]에 대해서는 모두 비동의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파시즘은 국가 지상주의적 사상을 바탕으로 성립한 극우적인 사상으로, 좌익 사상인 공산주의와는 대립 관계를 보였습니다. 파시즘 국가들끼리 방공 협정도 '공산주의(共)를 방지하는(防) 협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답과 해설

오답인 이유 |

'모든 것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국가에 반항하는 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등을 통해 주장 [B]는 파시즘과 관련된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모두 파시즘을 주장한 인물이므로, 주장 [B]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주장 [A], [B]에 대한 (가), (나) 인물의 의견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나)
[A]	비동의	비동의
[B]	동의	동의

20. ③

난이도 |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수에즈 운하는 ①1869년 개통된 이래로 국제 무역의 요충지로 역할하고 있다. 그러나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은 오랫동안 ②이집트가 아닌 영국의 손에 있었다. 그러던 중 정권을 장악한 ③가말 압델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하였다. 이에 영국이 프랑스, ④이스라엘과 손잡고 수에즈 운하를 침공하며 제2차 중동 전쟁을 일으켰는데 미국이 영국 연합군을 제지하여 영국은 물러나야 했고,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이 영국의 손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이 수에즈 운하로 설정되어 십수 년간 수에즈 운하가 폐쇄되었고,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이 손에 들어간 것은 ⑤197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수교하고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에 완전히 귀속된 이후의 일이었다.

정답인 이유 |

③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 대통령은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 총리,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요시프 브로즈 티토 대통령과 베오그라드에서 제1차 비동맹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미국 남북 전쟁은 1861년에 발발하였습니다.
- ② 마흐디 운동은 무함마드 아흐마드가 수단에서 일으킨 민족 운동입니다.
- ④ 카슈미르 분쟁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분쟁입니다.
- ⑤ 텐안먼 사건은 1989년에 일어났습니다.

정답과 해설

★ 출제자의 REVIEW ★

- ※ 저의 출제 기조가 '문제 풀이의 핵심은 자료 해석이다!'라고는 저번 정답과 해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지만, 2022학년도 수능 대비 EASY 모의고사 3회도 특히 그 지점에 신경썼습니다. 20문제 모두 높은 수준의 자료 해석 능력을 요하는 문제였죠.
- ※ 제가 이때까지 8회의 모의고사를 배포해 왔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입니다. 자료 해석의 어려움 & 지엽 개념 폭탄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 역시 연표 문제에는 크게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연표를 묻은 문제는 18번 하나이고, 이는 콜롬보 회의-반동회의로 이어지는 개념을 통해 풀 수 있죠. 간접적으로 연표를 묻은 문제도 20번뿐입니다. 6월에는 연표를 어렵게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이미 4회 출제가 완료된 상황이기에, 본격적인 연표 문제는 5회부터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D
- ※ 이번에는 특히 어느 부분에서 어렵게 냈다는 것은 없습니다. 중국사가 여전히 힘이 없다는 것을 빼면, 일본사, 서아시아사, 인도사, 서양사, 근현대사 모두 킬러급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문명 문제라고 1번에 배치한 아스테카 문명 문제도 사실상 킬러의 위용을 뽐내고 있죠.
- ※ 여러분을 가장 당황케 한 문제는 5번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5번 문제의 모티브가 된 것은, 고인물 가득한 세계사의 1등급컷을 47점까지 끌어내린, 이로 인해 2등급을 공중분해시킨 전설의 문제, 2020학년도 수능 6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와 2020학년도 수능 6번 문제 모두 수능 특강 서아시아사 날개 자료인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변천' 표를 활용한 문제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 6번 문제가 이중 '리디아'를 활용한 문제라면, 5번 문제는 '유대'와 '이스라엘', 그리고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를 모두 활용한 그야말로 폭탄 문제입니다. 수능에선 절대 이렇게 널리 없으니 틀렸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변천' 표를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 ※ 이번에도 '국가 간 관계 유형' 문제에 공을 들였습니다. 6번 문제는 기존에 평가원에서 출제해 온 것들과 다르게 전근대사에서 출제한 '국가 간 관계 유형' 문제라는 점에서, 12번 문제는 국가 간 관계 유형 문제를 극한의 난이도로 끌어올린 문제라는 점에서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 ※ 제가 종종 출제해 온 '주장-인물 연결 유형' 문제가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활용한 문제라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을 수 있으나,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의 관계는 전간기~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 자료 해석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문제로는 13번 문제가 있습니다. '한때의 왕 루이', '보통 선거를 도입'을 통해 프랑스 2월 혁명임을 추론해야 하는 문제이죠. 평가원에서 출제한 가장 이상적인 자료 해석형 문제가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교한 문제가 아닐까 하고 자화자찬해 봅니다.
- ※ 어려운 문제들을 해치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EASY 모의고사를 기대해 주세요:D

당신의 수능이 EASY해지는 그날까지,
EASY한 독도바다가 함께하겠습니다.